

제25대 방송과기술 신임 편집장 인사말

함께 협력하며 기술과 콘텐츠의 경계를 뛰어넘다



서진수
월간 방송과기술 신임 편집장

‘방송과기술’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의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 2024년 새해, 월간 방송과기술 편집장을 맡게 된 서진수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또 올해 2024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만 때론 의미를 찾기 힘들고 고민과 걱정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이 쌓이고 쌓여 인간이라는 거대한 신성한 우주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업(業)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방송계의 역사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였습니다.

라디오(AM/FM), 흑백TV, 컬러TV, 케이블, IPTV, 위성, 인터넷, 모바일, OTT, AI 등 방송은 그 시대의 최신 기술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기술들은 미디어 소비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치열한 시장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Wavve(웨이브)’는 당시 ‘pooq(푹)’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각 지상파 방송사의 정책·전략기획 담당자가 만났습니다. 왜 이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가의 답이 ‘생존(生存)’이었기 때문에 ‘연합(聯合)’했습니다. 자사 중심의 경쟁적인 방송문화가 질었던 방송사들이 생존이라는 공동의 미션을 위해 연합했습니다. 때론 치열하기도, 뜻을 같이하기도 하며 어렵게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변화와 선택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요.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방송환경은 오늘 어떤 모습일까요.

Broadcasting & Technology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송업(業)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방송과기술’로 찾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동의 다양한 전문 분야로 이루어진 방송계에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른 변화 시기에 자칫 방향 설정의 각도가 조금 어긋난다면 목적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과기술’이 오랜 시간 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혁신(革新)의 혁은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산 짐승을 죽여 피를 빼고 말리고 열을 가하며 수 없이 반복하는 매우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참신(斬新)의 참은 ‘베다’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것을 베어 새로운 것을 찾는 일입니다.
이 또한 냉혹하고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 대학의 특강 자리에서 ‘혁신’과 ‘참신’에 대해 말하자 많은 학생분들께서 그 뜻이 갖고 있는 무게감에 감사하게도 공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전문성과 창의력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혁신과 참신이 이루어진다면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기술과 콘텐츠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할 것입니다.

2024년 월간 ‘방송과기술’이 미디어 산업에 가장 정밀한 나침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며 지난 시간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우리 인간의 우주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방송업(業)임을 잊지 않도록 ‘방송과기술’의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각 방송사의 훌륭한 편집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우주’가 더욱 찬란하길 바라며. 